

《한국어기초사전》의 구축

강현화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모국어 화자의 사전 사용과 구별되는 한국어 학습자에게 필요한 사전의 요소는 무엇일까? 학습자의 사전 사용의 요구를 파악하는 일은 사전의 거시 구조와 미시 구조를 구성하는 시작점이 된다. 즉, 그들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국어 화자에게 사전은 주로 모르는 저빈도 단어의 의미를 찾거나, 한자 표기를 확인하거나 철자를 확인하는 일, 유사한 단어 간의 의미 구별을 하는 일, 그리고 사자성어나 속담의 의미를 확인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이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들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고빈도 단어들에 대해서는 사전을 찾아보아야 할 이유가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 학습자들의 사전 사용의 요구는 이와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학습자들의 사전에 대한 요구는 모국어 학습자에 비해 훨씬 다양하며, 요구하는 영역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이런 이유로 학습자의 요구는 사전의 거시 구조 및 미시 구조의 설계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한국어기초사전》은 이러한 외국인 학습자의 요구에 기반을 두고 설계되고 구축되었는데, 학습자들의 요구인 자습에 필요한 정보들(의미 정보, 발음 정보, 활용 정보,

문법 정보, 속달도에 적절한 예문, 관련어 정보, 화용 정보 등)을 담고자 했고, 필요에 따라 이들이 교수 현장에서도 교육 자료로 활발히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구축하였다.

2

먼저 사전의 표제어 선정의 문제부터 살펴보자. 사전의 표제어는 규모부터가 문제가 되는데,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단어 중 누적 빈도로 봤을 때,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단어의 수가 약 5만 규모로 알려져 있다. 《한국어 기초사전》은 이러한 선행 연구에 기대 약 5만 규모의 단어를 표제어로 삼았는데, 이는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회화 교재와 한국어 능력 시험 출제 자료에 출현하는 단어의 종류가 약 3만 단어 정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5만 단어 규모의 사전은 학습자에게는 충분한 규모의 사전이라고 볼 수 있다.¹⁾ 사전의 표제어 선정에는 고유 명사나 외래어(혹은 외국어)를 포함할 것이냐의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학습자를 위한 사전에서는 실제 언어 사용 양상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고유 명사나 외국어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들이 드라마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나온 단어를 찾아 보고 싶을 때, 해당 단어가 없다면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어기초사전》에서는 고유 명사나 외래어의 선정 지침을 따로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이를 반영하고자 했다.

1) 사전의 표제어 수의 선정은 필요에 따라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먹다, 먹히다, 먹이다, 먹이, 먹보, 먹성, 먹거리' 등과 같은 단어가 있을 때 이들을 각각의 단어로 보아, 7개의 단어로 수를 산정하는 방법(레마 단위)과, 이들은 모두 '먹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면 파생법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고 보아 1개의 단어로 산정하는 방법(단어족 단위)이 있다. 이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단어 수는 매우 달라진다. 국외 연구의 단어의 수는 보통 단어족 단위이다. 예를 들어 기본 어휘가 약 2천 단어 내외라는 기술은 사실 단어족의 개념으로 보았을 때 2천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어기초사전》은 한국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레마 단위를 기준으로 선정되었다.

다음으로는 각 사전 표제어의 내용을 어떻게 기술할 것이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학습자들이 사전을 찾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모국어 화자의 사전 사용과 가장 차이가 나는 점이다. 모르는 단어를 찾았을 때 한국어로만 설명이 되어 있는 경우,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의미 파악을 도울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야 하는데, 번역어를 제공하는 방법(다국어 대역사전)과 구체물인 경우 해당 단어의 이해를 돕는 그림, 사진, 동영상 등을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번역의 경우에는 뜻풀이 전체를 번역하여 이해를 돕는 방법과 그 단어에 해당하는 학습자 모국어 단어를 제시하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이해를 돕고자 했다.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멀티미디어 자료 등은 국외 한국어 교수 시에도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 자료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학습자들은 국외에서 학습하는 경우나 음운 규칙에 익숙하지 못한 경우, 해당 발음을 직접 듣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해당 단어는 물론, 용언의 활용형에 대한 발음 정보를 제공하여, 발음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발음 연습도 이루어지게 도울 수 있다. 활용 정보 역시 중요한데, 학습자들은 용언의 기본형을 알아도 활용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해당 용언으로 연계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불규칙 용언의 경우, ‘걸어서 간다’와 같은 문장에서 ‘걸어서’가 ‘걷다’의 활용형인지를 알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검색을 통해 듣거나 읽기 자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용언의 활용형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문법 정보는 용언의 경우, 함께 공기는 조사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때로는 해당 용언과 어울리는 주어나 목적어에 특정 의미를 가진 어휘군(사람 명사 혹은 사물을 나타내는 구체 명사 등과 같은 어휘군)이 올 때 이에 대한 정보나 자주 어울리는 부사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이러한 정보가 문법 정보로 제공되었다. 이러한 정보는 작문을 할 때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